

## 周邊特許侵害에 祭物된 글루타민酸소오다 輸出

우리의 글루타민酸 소오다가 自由中國의 그것과 같이 日本에 상륙했다가 큰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으나 국제적으로 獨尊을 誇示하던 일본의 이 業種에 遺憾없이 競業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日本の 글루타민酸 소오다 업체는 연간 9~10만t을 생산하여 국내에 소화한 나머지 2만t을 輸出하는가 하면 海外에 技術輸出 또는 資本進出 등으로 이 분야에서는 世界最強을 자랑할 뿐더러 <味元素>, 協和醱酵, 旭化成, 武田藥品 등 4社의 寡占體制로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체제 속에 작년초부터 양은 적으나 우리와 자유중국의 그것이 가격면에서 日本産보다 kg당 50~100원 내의 産값에 業務用으로 輸入되어 팔리고 있었다.

이에 놀란 日本業界는 그 원인을 窺明한 바 日本의 發酵製法の 基本特許가 期限이 경과했다는 약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4個 메이커에서 血眼이 되어 궁리 끝에 東京과 大阪의 兩稅關에 周邊特許의 侵害嫌疑를 들어 輸入禁止를 신청하여 성사하기에 이르렀다.

日本 메이커가 놀란 經濟的 計算의 根據가 t當 50~100원의 10만t 이라면 물론 50億圓이 되므로 있음직하기는 하다. 하지만 日本에 수출된 韓國과 自由中國産 글루타민酸소오다의 總量은 1,500t 안팎이며 여기에서 팔린 것은 겨우 20%라고 하니 泰山鳴動 風一匹格이 되었다.

그러나 日本業者들의 貿易戰略에는 輕視할 수 없는 警戒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 싱가포르 特許制度的 虛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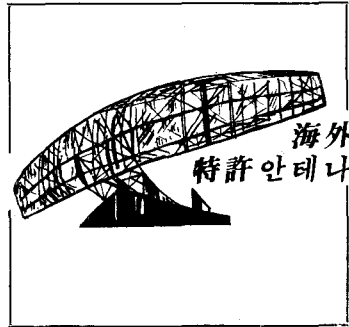
싱가포르에의 特許登錄出願은 英國特許權者만이 資格이 있으며 그것도 英國特許日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하고 存權期間은 영국 특

허의 나머지 기간에 국한된다.

싱가포르에서의 영국특허등록출원에는 대체로 지극히 정당한 이유 없이 提出期間의 延長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싱가포르에 출원한 出願人의 名義 또는 住所가 英國特許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등록출원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때에는 우선 英國特許局의 證明書提出을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영국 특허국으로부터의 證明을 받으려면 대개의 경우 法定時日에 늦어질 可能性이 짝으므로 事前에 조심해야 하며 법정시일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의 登錄出願書



類에는 영국의 登錄原簿에 記載된 정확한 명의 및 주소를 記入해야 하고 미리 영국 특허국으로부터 變更에 대한 證明을 入手하여 當局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때는 먼저 싱가포르 代理人에게 그 趙旨를 연락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對策을 講究케 하는 것이 현명하다.

### 中共과 商標保護協定國

대개의 共產國家들도 工業所有權制度가 마련되어 있으나 소련과 東歐圈 一部 國家를 除外하고는 아주 후진적이다. 亞細亞地域이 특히 그러하며 中共은 商標保護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까지 東·西陣營을 막론하고 中共과 商標保護에만 互惠協定을 맺은 나라들은 英國을 비롯하여 自由陣營이 7個國이고 共產국가는 東

獨 등 4개국뿐이다.

中共과의 商標保護協定國은 다음과 같다.

英國,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필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東獨,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상 11개국.

### 가시철사(有刺鐵線)와 特許權

美國에 조셉이란 대장간 主人이 있었다. 羊모피 納품을 파는 아들이 어느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의논하는 말이 「羊을 몰다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이웃 叢밭을 짓밟는 통에 건널 수가 없으니 가시철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 대장쟁이는 즉각 응락하고 다음날 3cm의 길이로 자른 철사를 羊牧場의 철사 울타리에 군데 군데 말아 놓았더니 과연 아이디어가 適中하여 양이 울안에서 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장쟁이는 特許를 出願하였고 이것이 有明한 가시철사(有刺鐵線)의 由來이다.

이 가시철사는 처음에는 담장에 쓰여져 防犯用으로 이용되다가 다음에 軍에서 사용한 후부터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어 巨富가 되었다.

한때 그 철사특허의 特許料는 우리돈으로 쳐서 100m에 1원70전 꼴의 엄청난 것이었다.

그들 父子는 특허기간인 17년 동안에 받아들인 특허료만 해도 11년의 計理士가 1년 동안을 헤아려도 끝맺지 못했다는 엄청난 財閥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리의 자그마한 대장간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創出된 것은 역시 必要가 發明을 刺戟한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요즘은 科學技術이 날마다 發展하는 터인만큼 가시철사와 같은 奇蹟은 좀처럼 이루기 힘들겠으나 舊態依然한 經營姿勢로 企業經營에 임할 때는 이미 지난 것이라 단언할 수 있겠다.